

충무공의 길... '조선수군 재건로' 복원 본격화

섬진강 화개장터~해남 우수영 450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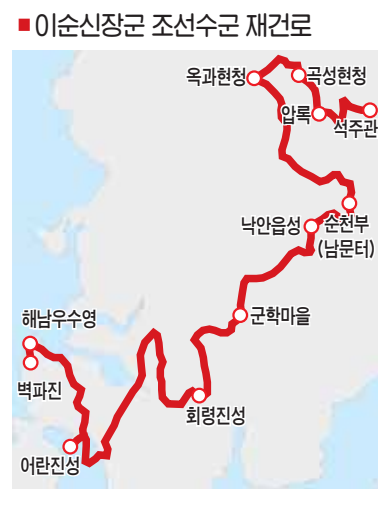
전남도, 26억 들여 탐방로·유숙지 정비

전남도가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구국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을 복원한다. 전남도는 23일 백의종군(白衣從軍)하던 충무공이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수임된 이후 명량대첩지로 한 달여간 이동하면서 군사와 무기, 병선, 군량 등을 모았던 역사의 현장길을 복

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선수군 재건로'로 붙여진 이 길은 섬진강 화개장터에서 구례, 곡성, 순천, 보성, 장흥, 강진, 진도를 거쳐 해남 우수영까지 450km에 이른다. <지도> 연말까지 역사 고증과 기초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26억원을 들여 탐방로

조성, 유숙지, 행적지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호국순례와 도보여행 코스로 활용될 이 탐방로는 이미 일부 조성된 탐방로와 찾길 등을 연결했다. 장흥 회진에서 해남 우수영까지는 바다 구간으로 육로로 대체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백의종군로는 충무공이 정유년(1597년) 1월 삼도수군통제사에서 파직된 후 도원수 권을 휘하에서 백의종군하라는 처분을 받고 같은 해 4월 1일 한성의 의금부 옥문(獄門)을 나와 경기와 충청, 전북, 전남을 거쳐

경남 초계에 있는 도원수부(都元帥府)에 도착해 8월 3일 재수임되기까지의 길을 일컫는다. 경남 하동에서 진주에 이르는 161km가 지난 2010년 복원된 데 이어 지난해 전남 구례~순천 간 119km, 경기도 수원~오산 간 35km가 복원됐다. 이송욱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백의종군로에 이어 조선수군 재건로가 완성되면 청소년 호국순례와 역사문화 탐방을 위한 도보와 자전거 여행객이 많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시기자 bungy@kwangju.co.kr



“시민 안심하고 생활, 행복도시 만들자”

안전문화운동 여수협 23일 공식 출범

여수시에 범시민 안전문화 운동을 주도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여수시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 여수시협의회(이하 안전협의회) 출범식이 23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공동 대표를 맡은 김중석 여수시장과 한병세 전남대 교수를 비롯해 여수교육지원청, 경찰서, 해양경찰서, 해양항만청, 소방서 등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대표 등 회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안전협의회는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안전 불감증 해소 등 안전문화운동 실천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지역특성에 맞는 분야별

실천과제 발굴을 위해 기획홍보,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5개 분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각 분야위원회에서는 4대 약 범죄 척결, 안전한 마을 만들기, 보행자 배려 운전하기, 가정과 작업장 안전점검 습관화 등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안전문화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 출범으로 안전예방과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게 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안전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안전·재난관리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1월 조직개편을 통해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총무과를 안전행정과로 개편하고 안전행정과 내 안전총괄팀을 신설하는 등 관련 사무 기능을 강화했다. /여수=김정희기자 chkim@

영광고추·고춧가루 지리적표시 등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영광고추와 고춧가루를 지리적표시등록 제90·91호로 각각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토양 등 고추재배 조건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한 점, 긴 일조시간을 이용한 태양초 생산 등 영광고추와 고춧가루가 우수한 품질을 널리 인정받고 있어 지리적표시에 등록됐다고 전남지원은 설명했다. 현재 광주와 전남지역에는 지리적표시 1호 보성녹차(2002년 지정)를 비롯해 총 24개 품목이 등록·지정돼 있다. 등록신청 공고 중에 있는 고흥

석류도 조만간 지리적표시에 등록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FTA협정에 따른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역 특산물임을 표시해 주는 지리적표시 등록제를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리적표시 등록 품목은 지리적표시권과 함께 이에 따른 지적재산권도 보호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062-970-62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보성차밭 빛 축제장을 찾은 가족단위 관광객이 23일 새해 희망을 적은 소망카드를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고 있다. 지난 13일 개막한 보성차밭 빛 축제는 내년 2월 2일까지 화려한 빛의 향연을 펼친다.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신안 체육인의 밤' 행사 성료



'2013년 신안체육인의 밤' 행사가 지난 20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우량 신안군수와 양영모 신안군의회 의장, 최준욱 생활체육회장, 체육관련 단체 임원 및 선수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신안군은 섬 지역으로 선수들이 연습하는데 있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전남도체육대회에서 축구 우승을 비롯해 수영, 복싱, 태권

도 등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종합 8위를 차지했다. 특히 궁도는 지리산 남악제 전국대회에서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1위, 담양대나무기대회 단체전에서 우승을 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최준욱 생활체육회장은 “군민 모두 최소한 1인 1종목이라도 운동을 생활화 해 군민화합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이성진기자 sslee@

'고흥 우주랜드' 조성 본격도 올라

군, 주민설명회 마치고 전남도에 개발 승인 신청

나로 우주센터와 연계한 세계적인 우주 체험명소 구축의 첫 시발점으로 복합·체류형 관광단지인 '고흥 우주랜드'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올라. 23일 고흥군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선정돼 지난 6월부터 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와 함께 주민설명회 등을 마친 우주랜드 조성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을 전남도에 신청하기로 했다. 우주랜드 조성 사업은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일원 15만9612㎡에 2016년까지 총 518억원을 투입하는 프로젝트로,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주랜드에는 방문자센터, 우주인 푸드코트, 테마형 상가, 스페이스 어드벤처 등 홍보·판매기능의 스페이스 터미널과 전시·체험기능의 우주인 캠프장, 스페이스 키즈파크, 스페이스 타임캡슐공원, 우주인거리(전망데크) 및 숙박기능을 담당할 우주인(Inn), 가족휴양센터 등이 들어선다. 고흥군은 인근 나로우주센터를 비롯해 우주과학관,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등 우주과학 시설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해 우주랜드를 우주체험·관광·교육·숙박이 어우러진 차별화된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우주랜드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2017년부터 한곡형 방사체 역체 로켓발사에 따른 연구원 및 기업체 관계자와 급증하는 우주과학 관람자를 위한 체류형 편의시설 구축을 통해 전 국민에게 새로운 창조관광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국정과제인 고흥 우주랜드 조성은 미래를 지향하는 시대흐름에 가장 어울리는 테마를 가진 사업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인 우주 테마파크가 구축되면 국민 관광 수요 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인·허가가 끝나면 추가 국비지원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흥=주경지기자 gjju@

진도, 농산어촌개발 공모 대거 선정 사업비 211억 지원 받는다

진도군이 2014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공모사업에 대거 선정돼 사업비 211억원을 지원받는다. 진도군은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공모사업을 신청, 군내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70억원, 초사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40억원, 보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20억원, 광석권역 지역역량강화사업에 5000만원 등 5건에 170억5000만원을 지원받기로 최근 확정됐다. 또 시범 공모사업인 안농마을 리모델링사업(40억8000만원)까지 포함하면 총 211억3000만원으로,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최대 규모다. 특히 군은 2015년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 지난 5월 한곡농어촌공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중·장기 전략 계획과 각 부문별 계획을 담은 '진도군 농·

농촌·식품산업 종합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진도군은 2015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농·농촌 종합발전계획 시범사업 추진시 타 시·군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시·군이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광역회계 국비사업이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 전남도 1차 심사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차 심사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평가해 선정하는 공모사업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경매에 관한 모든 것!

(주) 오 천 경 매
직통, 010-3605-5000
대표, 최 선 규 드림

사무실 같이 쓰실 분	특수비법 배우실 분	경매에 투자 하실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직 경매만 하실 분 ▶ 현, 5명 근무 4명 모집 ▶ 책상/컴퓨터등 집기 제공 ▶ 사업자 가능/여직원 보조 ▶ 공동투자, 권리분석등 혜택 ▶ 사용료, 1200만원(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낙찰 사례 실전 교육 ▶ 배우면서 투자 가능 ▶ 주 1회/3개월 완성 ▶ 교육비, 1200만원 단, 상담 후 본사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 1억원 이상 ▶ 지분/공동투자 방식 ▶ 제1순위 근저당 방식 ▶ 소유권/근저당으로 보장 ▶ 수익률, 년 15% 이상 ▶ 투자기간, 1년정도

“급매”

1.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13층 53평
전체 올수리, 코너, 전망 좋음
주거겸사무실(방2, 거실)
매매가, 1억5500만원(시세 2억)

2.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상가, 1층 25평
현, 보3천만원에 월125만원 임대 중
대출 7500만원 가능)
매매가, 1억7500만원(시세 2억5천만원)